2026년 11월 26일 공보 2026-11-09호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2026년 11월 26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참고자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하게 된 배경"

(붙임 참조)

문의처: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팀장 안세현, 차장 정우재
Tel: (02) 759-4461, 4066 Fax: 759-4485 E-mail: mpdept@bok.or.kr
공보관: Tel: (02) 759-4199, 4135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BANK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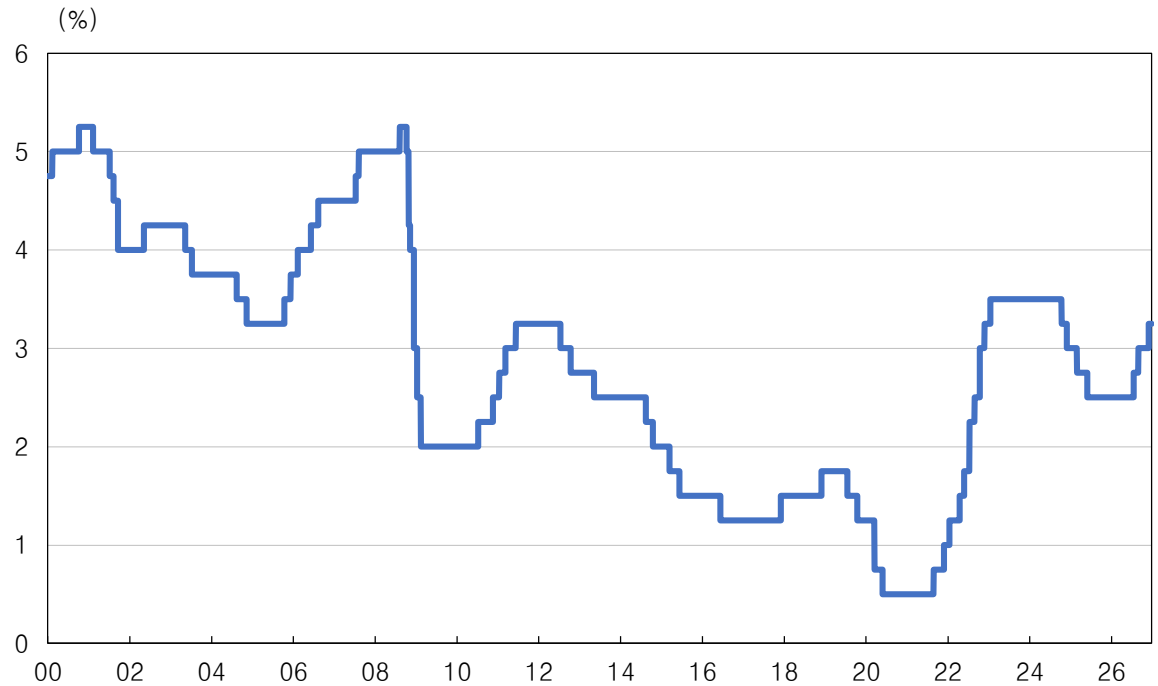
(붙임)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하게 된 배경

[정책결정]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00% 수준에서 3.25%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한층 강화된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한국은행 기준금리[1] 추이



주: 1) 2008년 2월까지는 콜금리 목표

[대외경제 여건]

□ 세계경제는 중동지역의 긴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견조한 AI 투자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는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이 확대되면서 당분간 높은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지표

		2024	2025	25.4/4	26.1/4	2/4	3/4	26.8월	9월	10월
미국	GDP성장률[1](전기비연율, %)	3.0	2.3	0.2	2.5	2.2	4.3	-	-	-
	소매판매[1](전기비, %)	1.5	3.2	0.6	0.8	2.8	1.3	1.5	0.8	0.2
	산업생산[1](전기비, %)	-0.7	1.1	-0.5	0.3	1.2	0.6	-0.1	0.7	-0.4
	ISM제조업[2](기준=50)	48.2	48.9	48.2	52.6	53.3	54.9	54.6	54.5	55.5
	실업률[1](%)	4.0	4.3	4.5	4.3	4.3	4.1	4.1	4.2	4.1
	비농가취업자수증감[1](전기비, 만명)	182.6	76.4	-9.1	13.0	29.1	17.6	18.6	6.0	16.5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2.9	2.6	2.7	2.7	3.9	3.5	3.4	3.7	-[5]
	근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3.4	2.8	2.7	2.5	2.7	2.5	2.4	2.6	-[5]
유로	GDP성장률[1](전기비연율, %)	1.3	1.2	0.9	0.0	2.6	1.7	-	-	-
	소매판매[1](전기비, %)	1.3	2.5	0.6	0.3	0.4	-0.5	0.4	-0.7	..
	산업생산[1](전기비, %)	-2.9	1.6	0.2	-1.0	0.6	-0.6	-0.5	0.2	..
	제조업PMI[2](기준=50)	45.9	49.1	49.5	50.6	51.7	52.5	52.7	52.9	52.7
	실업률[1](%)	6.4	6.4	6.3	6.3	6.4	6.5[6]	6.5	6.5	..
	수출[1][3](전기비, %)	0.6	2.5	-0.7	0.8	5.9	1.6	-1.4	2.0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2.4	2.1	2.1	2.0	3.0	3.3	3.2	3.8	4.0
	근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2.8	2.4	2.4	2.3	2.4	2.5	2.4	2.5	2.6
일본	GDP성장률[1](전기비연율, %)	0.1	1.2	1.1	1.9	1.7	-0.1	-	-	-
	소매판매[1](전기비, %)	2.5	1.4	0.5	1.5	1.9	-0.9	-0.9	-0.6	..
	산업생산[1](전기비, %)	-2.6	-0.3	0.3	2.5	0.2	0.2	-2.4	2.0	..
	제조업PMI[2](기준=50)	49.2	49.0	49.0	52.0	54.8	54.5	54.9	54.1	53.3
	수출[1](전기비, %)	6.2	3.1	4.8	8.5	2.0	3.3	0.1	-1.0	3.3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2.7	3.2	2.7	1.4	1.5	2.0	1.9	2.1	2.3
	근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1.9	1.6	1.5	1.5	1.2	1.8	1.6	2.2	2.1
중국	GDP성장률(전년동기비, %)	5.0	5.0	4.5	5.0	4.3	4.5	-	-	-
	소매판매(전년동기비, %)	3.5	3.7	1.7	2.4	0.2	0.7	0.4	1.1	0.4
	산업생산(전년동기비, %)	5.8	5.9	5.0	6.1	4.6	5.1	5.2	5.5	4.8
	제조업PMI[2](기준=50)	49.8	49.6	49.4	49.6	50.2	49.7	49.8	50.1	49.3
	수출(전년동기비, %)	5.8	5.4	3.7	14.7	20.0	28.4	24.9	36.3	35.2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0.2	0.0	0.6	0.9	1.1	0.7	0.8	0.9	0.7
	생산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2.2	-2.6	-2.1	-0.6	3.6	4.1	3.8	5.0	5.7
글로벌	교역량증가율[4](전년동기비, %)	2.7	4.2	3.4	4.6	5.3	6.0	6.1	6.8	..

주: 1) 계절조정 기준
2) 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3) 역내거래 제외
4) 상품수입량 기준
5) 25.10월 셧다운으로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미공표
6) 기간중 월평균 기준

□ 국제금융시장에서는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위험회피심리가 강화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되고 장기 국채금리는 하락하였다. 미 달러화는 연준의 금리인상 기대가 높아지면서 강세를 나타내었다.

□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AI 투자 전망, 주요국의 통화·재정 정책 변화, 중동사태 전개양상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금융지표

		2025	26.7월	8월	9월	10.22일	10월	11.25일
국채금리[1](%)	미국(2년물)	3.47	4.29	4.34	4.89	4.64	4.59	4.64
	미국(10년물)	4.17	4.73	4.75	5.28	4.95	4.93	4.85
	독일(10년물)	2.86	3.21	3.32	3.59	3.33	3.32	3.23
	영국(10년물)	4.48	5.05	5.06	5.42	5.33	5.28	5.13
환율[1]	달러인덱스	98.3	99.9	99.4	101.5	101.6	101.9	103.7
	신흥시장국[2]	46.6	46.6	46.4	45.7	45.6	45.2	44.1
	엔/달러	156.7	157.4	159.7	157.4	156.8	157.6	159.2
	위안/달러	6.99	6.75	6.72	6.70	6.67	6.65	6.68
주가[1][3]	전세계	1,014.6	1,120.5	1,149.2	1,134.8	1,122.9	1,115.6	1,049.7
	선진국	4,430.4	4,847.9	4,967.9	4,902.6	4,895.1	4,862.4	4,595.3
	신흥시장국	1,404.4	1,665.9	1,719.3	1,704.9	1,575.7	1,566.6	1,423.4
VIX[1]		15.0	16.0	14.9	16.3	19.0	19.4	28.3
CDS프리미엄[1](bp)	신흥시장국	124.1	145.4	138.1	160.0	169.8	169.5	185.5
	중국	43.5	38.2	35.4	35.2	38.7	37.3	34.3
	한국	21.8	22.8	21.5	23.3	25.2	24.1	23.7
유가[1](달러/배럴)	WTI[4]	57.4	84.7	85.8	90.4	99.5	104.1	83.7
	Brent[4]	60.9	90.1	90.5	103.5	113.2	117.6	94.6
	Dubai[5]	61.1	79.4	83.7	93.4	105.2	109.0	85.8
신흥국 글로벌펀드자금 유입 (기간중, 억달러)		553.1[6]	957.2	3.8	162.0	600.5[7]	945.6	530.6[8]

주: 1) 기말 기준 2) JPMorgan 신흥국지수 기준 3) MSCI 기준
4) 선물 기준 5) 현물 기준 6) 12월 기준 7) 26.10.1~10.21일 기준
8) 26.10.29~11.18일 기준

[실물경기]

□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 호조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취업자 수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앞으로도 국내경제는 반도체 경기 호조의 영향으로 수출과 투자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소득 여건 개선,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소비 회복세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 및 내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치(각각 3.3%, 2.9%)를 큰 폭 상회하는 3.9%, 4.1%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성장경로에는 반도체 경기의 확장 및 내수파급 정도, 중동사태 전개상황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다.

실물경제지표

(%, p, 만명)

	2024	2025	25.4/4	26.1/4	2/4	3/4	26.8월	9월	10월[6]
GDP 성장률[1]	2.2	1.1	-0.1	1.8	0.6	1.0	-	-	-
(민간소비)	1.3	1.5	0.4	0.6	0.4	-0.2	-	-	-
(설비투자)	1.0	1.5	-1.6	6.6	0.2	4.1	-	-	-
(건설투자)	-2.0	-9.7	-2.6	1.4	-0.1	0.7	-	-	-
소매판매액지수[2]	-1.9	0.3	0.6	2.4	-1.8	-1.0	-1.8	3.6	..
설비투자지수[2]	3.0	1.2	-3.8	13.0	3.4	6.3	-9.7	5.3	..
건설기성액[2]	-4.6	-16.5	-4.1	0.5	0.1	6.1	2.5	5.8	..
수출(통관)[3]	8.1	3.8	8.4	38.4	57.2	72.4	68.6	84.0	93.9
- 일평균[3]	(8.1)	(4.5)	(11.6)	(35.3)	(56.0)	(82.6)	(72.5)	(105.4)	(76.3)
제조업생산지수[2]	4.3	3.0	-3.3	3.0	1.3	4.1	-4.9	9.9	..
서비스업생산지수[2]	1.3	2.0	1.2	1.4	1.3	0.3	0.7	0.5	..
소비자심리지수[4]	99.8	103.9	110.6	110.0	104.0	106.0	104.5	106.6	105.4 [103.1]
기업심리지수[4][5]	93.1	92.9	93.4	97.2	100.4	102.2	103.8	99.5	105.6 [104.8]
취업자수 증감[3][4]	15.9	19.3	19.5	18.3	3.2	13.5	18.4	11.3	13.9
고용률(계절조정계열)	62.7	62.9	62.8	62.9	62.6	62.8	62.9	62.9	62.8
실업률(계절조정계열)	2.8	2.8	2.9	2.9	2.8	2.7	2.7	2.6	2.5

주: 1) 계절조정, 전기비 2) 계절조정, 전기비, 국가데이터처「산업활동동향」기준
3) 전년동기비 4) 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5) 제조업 실적 CBSI 기준
6) [ ]내는 26.11월

[물 가]

□ 물가를 보면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모두 10월 중 개인서비스 및 내구재 가격의 높은 상승세로 2%대 후반(2.8%)의 오름세를 이어갔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10월 중 2.6%로 전월(2.7%)보다 낮아졌다. 앞으로 물가는 높아진 비용압력의 전이가 지속되고 성장세 확대로 수요측 압력도 점차 커지면서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금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과 같은 2.7%로, 내년에는 지난 전망치(2.3%)를 상회하는 2.4%로 전망되며, 근원물가 상승률은 금년과 내년 모두 지난 전망치(2.5%)를 상회하는 2.6%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내수 개선 속도 및 임금 상승세 확산 정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물가지표

(전년동기비, %)

	2024	2025	25.4/4	26.1/4	2/4	3/4	26.8월	9월	10월[3]
소비자물가[1]	2.3	2.1	2.4	2.1	3.0	2.9	3.1	2.9	2.8
	-	-	(0.6)	(0.9)	(1.1)	(0.3)	(0.2)	(0.3)	(0.2)
▪ 농축수산물	5.9	2.4	4.2	1.2	1.6	-0.7	-2.6	-0.3	-1.7
▪ 공업제품	1.5	1.9	2.3	1.9	4.1	3.9	3.7	4.2	4.4
(석유류)	-1.1	2.4	5.6	2.5	23.6	14.8	14.2	14.8	14.9
(석유류 제외)	1.9	1.9	1.9	1.8	1.6	2.5	2.4	2.8	3.1
▪ 전기·수도·가스	3.5	1.9	0.4	0.2	0.2	0.4	0.4	0.4	0.4
▪ 서비스	2.2	2.2	2.3	2.4	2.6	3.0	3.7	2.7	2.7
(공공서비스)	1.7	0.8	1.3	1.4	1.6	3.1	6.5	1.5	1.7
(개인서비스)	3.0	3.1	3.1	3.2	3.4	3.5	3.5	3.5	3.3
근원인플레이션율									
▪ 식료품·에너지 제외	2.2	1.9	2.0	2.2	2.4	2.9	3.4	2.8	2.8
▪ 농산물·석유류 제외	2.1	2.2	2.4	2.3	2.4	2.8	3.1	2.7	2.8
기대인플레이션율[2]	3.0	2.6	2.6	2.6	2.8	2.7	2.7	2.7	2.7 [2.6]

주: 1) ( )내는 전기비
2)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일반인 기준), 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3) [ ]내는 26.11월

[금융안정]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주가는 글로벌 AI 투자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큰 폭 조정되었으며, 국고채금리도 주요국 국채금리와 함께 하락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강세,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 등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의 영향으로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국내금융지표

	2025	26.7월	8월	9월	10.22일	10월	11.25일
국고채금리[1)2)](3년물, %)	2.95	3.76	3.84	4.01	3.84	3.72	3.58
국고채금리[1)2)](10년물, %)	3.39	4.26	4.31	4.41	4.15	4.01	3.76
통안증권금리[1)2)](91일물, %)	2.40	2.77	3.01	3.14	3.17	3.18	3.28
CP금리[1)3)](91일물, %)	3.30	3.17	3.25	3.42	3.75	3.84	3.89
회사채금리[1)3)](3년, AA-, %)	3.46	4.46	4.52	4.68	4.52	4.39	4.24
(3년, BBB-, %)	9.30	10.26	10.33	10.49	10.32	10.20	10.05
KOSPI[1)]	4,214.2	6,595.5	6,820.0	6,838.0	5,533.8	5,730.7	4,697.5
원/달러 환율[1)]	1,439.0	1,424.0	1,368.6	1,352.8	1,324.2	1,334.3	1,343.2
원/100엔 환율[1)]	922.2	888.3	856.1	862.7	842.4	847.0	842.8
외국인 주식순매수(조원)[4)]	2.7[5)]	-8.8	-12.2	-22.8	-20.4	-22.1	-18.1

주: 1) 기말기준 2) 최종호가수익률 기준 3) 민간신용평가기관 4사 평균 기준
4) 월중 기준 5) 12월 기준

□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과 기타대출이 모두 늘어나면서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수도권 주택가격은 오름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가격 상승 기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기업·가계대출 및 주택가격 지표

	2024	2025	25.4/4	26.1/4	2/4	3/4	26.8월	9월	10월
은행 기업대출 증감(조원)	67.4	48.8	3.8	23.1	26.4	28.1	9.7	10.7	10.2
▪ 대기업	26.7	20.4	0.7	12.0	13.5	16.2	4.9	7.5	4.0
▪ 중소기업	40.6	28.4	3.2	11.1	12.8	11.9	4.8	3.2	6.2
은행 가계대출 증감[1)](조원)	46.0	32.8	3.5	-1.0	16.6	9.5	3.5	0.5	5.0
▪ 주택담보대출[1)]	52.2	32.6	2.4	-0.3	10.2	10.4	4.1	2.9	3.3
▪ 기타대출[2)]	-6.0	0.3	1.1	-0.6	6.4	-0.9	-0.6	-2.3	1.7
주택 매매가격[3)](%)	0.1	1.0	0.8	0.7	0.7	1.0	0.3	0.3	0.3
▪ 수 도 권[3)4)]	1.4	2.9	1.5	1.2	1.5	2.0	0.6	0.6	0.6
(서 울)[3)]	3.2	7.1	2.8	2.0	2.5	2.9	1.0	0.8	0.6
▪ 지 방[3)5)]	-1.0	-0.7	0.1	0.2	0.0	0.1	0.0	0.0	0.0

주: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전세자금대출, 이주비·중도금대출 등 주택담보로 취급되지 않은 주택관련대출 포함
2) 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상가·오피스텔 등) 담보대출, 기타대출(예·적금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 등으로 구성
3) 전기비, 연·분기는 전기말월대비, 한국부동산원 지수 기준
4) 서울, 인천, 경기 5) 수도권 제외

[향후 정책 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수출 및 투자 호조 지속, 소비 회복세 확대 등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물가는 비용 및 수요측 압력의 영향으로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와 관련한 금융불균형 위험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경기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 금번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대해 금융통화위원 5명은 찬성하였으며, 황건일 위원과 이수형 위원은 기준금리를 3.00%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